

보도시점 2024. 7. 4.(목) 12:00 배포 2024. 7. 4.(목) 08:00

## 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상담·삭제·예방교육 통합지원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위장수사 활성화 추진

- '2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등 조사 결과, 중고생 3.9%가 성적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적 있으며, 중고생과 성인 대다수가 관련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요구
-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엑스 등)에 전용 상담채널(디포유스) 운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쿨'을 통한 교육 강화
- 위장수사관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위장수사 점검단 운영 등 위장수사 활성화 추진

□ 여성가족부가 2023년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생의 3.9%는 성적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엔(N)번방 사건 계기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단순 사회적 풍속의 문제가 아닌 범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 변경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20.6.2.)

○ 이번 조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서,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 청소년의 인식 및 피해 경험 외에, 19세 이상 성인(2,033명)의 인식과 대표적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콘텐츠 유통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 <조사 개요>

- (조 사 명) 202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경험 등 조사
- (조사내용 및 조사대상)
  1. 청소년의 인식 및 피해경험 :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
  2. 일반인(성인)의 인식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2,033명
  3. 온라인 유통 실태 : 대표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영상 공유 플랫폼, 불법 성적영상물 사이트 각 1개소
- (조사방법)
  1. 청소년의 인식 및 피해경험 : 학교방문 학급단위 집단 면접조사 (자기기입식 설문)
  2. 일반인(성인)의 인식 : 컴퓨터를 활용한 웹/모바일조사
  3. 온라인 유통 실태 : 관련 검색키워드로 나타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게시물 현황 조사
- (수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세대학교, (주)한국리서치

\* 본 조사는 2023년 처음 실시하여 국가승인통계 등재 검토 중으로, 현재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 < 조사 결과 >

- (청소년 인식 및 피해경험) 이번 조사 대상 중·고등학생(4,757명)의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경우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가 68.3%로 가장 높았다.
-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3.9%로 나타났으며,
-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등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도 응답자의 1.1%가 있었다고 답했다.
-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또는 강요를 받은 청소년도 0.6%로 나타났으며, 비동의 상태에서 허위영상을 포함한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유포된 경우도 1.1%에 달했다.
- 또한, 이러한 비동의 촬영 및 성적이미지 유포 또는 유포 협박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은 경찰이나 피해자 지원기관보다는 개인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비율이 높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때에도 신뢰하는 어른보다는 또래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리는 경향이 높았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 인식에 대해서 5점 척도(5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인식)로 조사한 결과, 평균 4.7점으로 관련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유포 또는 유포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인의 인식) 전국 19세 이상 성인(2,033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인식 조사 결과도 중·고등학생 대상 조사결과와 비슷하였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 인식을 5점 척도(5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인식)로 조사한 결과, 평균 4.6점으로 관련 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포 또는 유포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 인식이 높았다.

- 또한, 조사대상자의 92.7%는 아동·청소년의 성적이미지 등을 보는 것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한 노력 방안으로 성인의 37.6%가 ‘제작·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관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26.8%),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확립’(12.6%), ‘유해정보 차단기술의 개발 및 보급’(12.1%) 순으로 답하였다.
- (유통 실태) 아울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 수가 많은 대표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과 영상 공유 플랫폼 각 1개소 및 성인사이트 등으로 인식되는 불법 성적영상물 사이트 1개소 등 총 3개소를 선정하여 관련 콘텐츠 유통 실태를 참고적으로 조사<sup>1)</sup>하였다.
- 그 결과, 대중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영상공유 플랫폼에서는 주로 성적 은어를 사용하여 관련 광고 제작물을 게시하고, 이를 경로로 직접적인 성적 이미지 공유 및 유포는 라인 아이디, 디스코드 주소 등을 통해 좀 더 폐쇄적인 경로로 유도함을 알 수 있었다.
- 또한 불법 성적영상물 사이트<sup>2)</sup>에 게재된 전체 성적영상물 중 상당수 (약28%)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추정되어,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더욱 쉽게 접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 향후 계획 〉

- 여성가족부는 그간 「청소년성보호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삭제지원 및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청소년성보호법 주요 개정) 벌금형 삭제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20.6.2.개정),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 도입('21.3.23.개정)

- 우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피해 상담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1) 법적·윤리적 한계로 직접적인 성착취물 시청 등이 불가하여, 콘텐츠 제목, 소개글, 해시태그(#), 사용자 ID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콘텐츠임을 추정하여 조사함

2) 한국어 기반 사이트 중 일일 페이지뷰가 250만회 이상인 사이트 1개를 선정하여 분석

- 카카오톡, 라인, 인스타그램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5곳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전용 상담채널\*을 개설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성착취 유인·의심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 \* 디포유스(d4youth) : 카카오톡, 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에 상담채널을 설치하여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 정보제공, 모니터링 및 신고, 사이버아웃리치 등 제공
- 온라인 그루밍 등 성착취 피해 발생 시 상담과 신고 등을 지원하는 피해 접수 앱(“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앱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대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특화상담소(’24년 14개소)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 삭제지원 및 치유프로그램 등도 지속 제공한다.
  - 특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현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하고 있으며,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 (’22) 35천 건 → (’23) 36천 건
  - 해외 관계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국경 없는 범죄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성착취물 유포 방지 및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한 국제 공조 및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 여가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간 업무협약 체결(’24.7.3.)
    - \*\* 디지털성범죄 대응 국제콘퍼런스 개최(여가부-UN여성기구, ’24.7.3.)
-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유포·시청·소지의 불법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온라인 성착취 피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초·중·고·대학생 등 대상별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하며,
  -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의 줄임말, www.dicle.kigepe.or.kr)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자료 제공
- 올해는 온라인 그루밍 진단 도구 등 교육자료 3종을 추가적으로 개발·보급하여 아동·청소년과 학부모 등이 성 착취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를 위해 위장수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18개 시·도경찰청에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여 위장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위장수사 점검단’도 운영하는 등 위장수사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실태를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라며,
-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비공개·위장수사 특례를 활용해 수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실화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1】 청소년상담채널 ‘디포유스’ 안내
- 【붙임2】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활용 지원 절차
- 【붙임3】 ‘2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피해경험 및 인식 등 조사 결과 요약

담당부서	권익정책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책임자	과 장	이정애 (02-2100-6401)
		담당자	사무관	조준홍 (02-2100-6405)



□ 청소년 상담채널 '디포유스(d4youth)'

- [대상] 디지털 성범죄나 온라인 그루밍 등 온라인 성착취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상담을 원하는 아동·청소년 및 조력인 등 누구나
  - [내용] 피해상황별 정보 제공 및 연계(심리상담·법률·의료·피해촬영물 삭제 등)
  -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10시
  - [상담방법] 각 채널 검색 후 일대일 채팅 및 메시지 전송
- ※ 카카오톡·라인 @d4youth / 엑스·인스타그램·페이스북 @d4youth1020

디포유스 d4youth  
온라인 청소년 상담채널

**청소년**

**상담채널**

#간편채팅 #비밀보장

**디포유스**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피해 상담

**상담 시간**  
평일 10:00~22:00  
(점심시간 12:00~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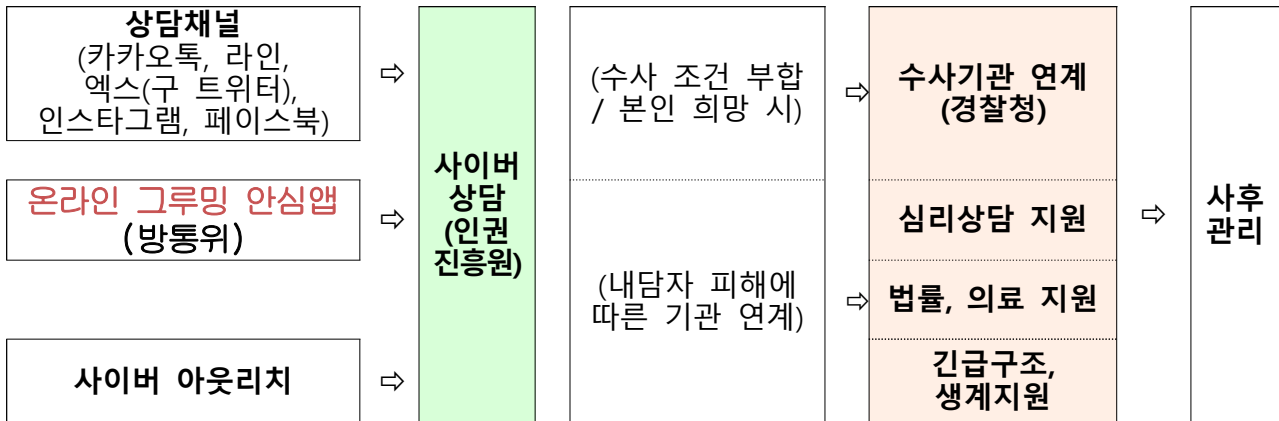
**상담 신청**  
카카오톡 | 라인 @d4youth  
트위터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d4youth1020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붙임2

##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활용 지원 절차

### □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상담 절차



### □ 앱 활용 화면(예시)

- ❖ ▶ 앱 다운로드※ → ▶ SNS, 랜덤채팅앱 등에 온라인 그루밍 엿지 자동 생성 →  
▶ 온라인 그루밍 정황 발생 → ▶ 휘발성 강한 범죄증거인 온라인 그루밍 채팅 자동 캡처 →  
▶ 온라인 그루밍 피해 접수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문상담, 정보제공
- <필요 시> ❶ 경찰 수사의뢰 연계, ❷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삭제 지원 바로 연계,  
❸ 기타 지원기관 연계 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안드로이드폰에서 사용가능





## 1. 청소년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경험

### <조사 개요>

- (조 사 명) 청소년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인식 및 피해경험 등 조사
- (조사내용 및 조사대상) 전국 중·고등학생 (중1~고2) 4,757명
- (조사방법) 학교방문 학급단위 집단 면접조사 (자기기입식 설문)
- (수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한국리서치

### 종합

- ◎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중 ①14.4%가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 있었고, ② 3.9%는 누군가로부터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었음. ③ 1.7%는 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 성적 이미지를 강제로 또는 몰래 촬영한 피해경험이 있었고, ④ 1.1%는 본인의 성적 이미지(허위영상물 포함)가 공유·유포되는 피해를 겪었으며, ⑤ 0.6%는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또는 강요받은 피해경험이 있었음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 인식에 대해서는 평균 4.7점(5점 척도)으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1-1. 청소년의 관련 피해 경험3)]

#### (1) 의도치 않게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경험

-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경우가 14.4%로, 자신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인으로부터 제3자나 지인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받은 경우(제3자 2.5%, 지인 본인 1.3%)보다 월등히 높았음

#### 【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 노출 및 수신 경험 】

단위 : (명), %

구분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	고
사례수(명)		(4,757)	(2,450)	(2,307)	(2,943)	(1,814)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사진/동영상을 보게 된 적이	있다	14.4	13.0	16.0	14.3	14.6
	없다	85.6	87.0	84.0	85.7	85.4
내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이 제3자의 성적 사진/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다	2.5	2.6	2.2	2.3	2.8
	없다	97.5	97.4	97.8	97.7	97.2
내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이 자기의 성적 사진/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다	1.3	1.1	1.5	1.1	1.7
	없다	98.7	98.9	98.5	98.9	98.3

3) 청소년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피해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아, 4개 그룹(남중/여중/남고/여고)으로 분석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성별(남/여) 및 학년(중/고) 각각 2개 그룹으로 분석하였음.



- 인터넷 이용 중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였음(전체 피해 응답자(685명)의 68.3%)

## (2)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 전송/공유를 요구받은 경우

-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3.9%로 나타났음
- ‘온라인에서만 아는 사람’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가 오프라인 지인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보다 높았으며,
- 성적 이미지 전송/공유 요구를 받은 경험률은 남학생(2.2%)보다 여학생(5.8%)이 더 높았음

### 【 성적 이미지 전송/공유 요구 경험 유무 】

단위 : (명), %

구분			전체	성		학교급		
				남	여	중	고	
사례수(명)			(4,757)	(2,450)	(2,307)	(2,943)	(1,814)	
전체			없다	96.1	97.8	94.2	95.7	96.7
			있다	3.9	2.2	5.8	4.3	3.3
오프라인 지인	성적 사진/동영상	없다	98.9	99.4	98.4	98.7	99.1	
		있다	1.1	0.6	1.6	1.3	0.9	
	스트리밍	없다	99.2	99.3	99.0	99.2	99.0	
		있다	0.8	0.7	1.0	0.8	1.0	
		온라인에 서만 아는 사람	성적 사진/동영상	없다	97.6	99.3	95.9	97.3
	있다	2.4	0.7	4.1	2.7	1.8		
	스트리밍	없다	99.0	99.3	98.7	99.0	98.9	
		있다	1.0	0.7	1.3	1.0	1.1	

## (3) 성적 이미지 촬영/제작 피해

- 동의 없이 타인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총 2.7%<sup>4)</sup>로, 낯선 사람이 공공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은닉해 촬영한 경우(1.1%)보다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강제로 혹은 몰래 촬영한 경우(1.7%)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4) 공공장소 은닉촬영, 지인의 비동의 촬영의 중복 피해건수를 고려한 수치임

## 【 비동의 촬영 피해 경험 】

단위 : 명, %

구분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	고
사례수		(4,757)	(2,450)	(2,307)	(2,943)	(1,814)
공공장소 은닉촬영	있다	1.1	1.0	1.2	0.9	1.4
	없다	98.9	99.0	98.8	99.1	98.6
지인의 비동의 촬영	있다	1.7	2.0	1.4	1.5	2.0
	없다	98.3	98.0	98.6	98.5	98.0

- 동의하여 아는 사람이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5%였고, 촬영자가 성인이거나 강압, 대가 약속이 있었던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0.6%였음
- 다른 사람의 요구로 자신이 제작한 성적 이미지를 전송/공유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0.9%였음

### (4) 성적 이미지 유포 협박·강요 피해<sup>5)</sup>

-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또는 강요받은 경우는 0.6%로, 협박·강요 받은 내용으로는 ‘오프라인 만남’을 강요받은 비율이 24.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추가 성적 이미지 요구’(23.9%)였음

#### 【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협박·강요 시 구체적인 내용 (중복 응답) 】

단위 ; ‘그렇다’의 %

구분	‘그렇다’의 %
사례수(명)	(28)
추가로 성적 사진/동영상 요구	23.9
지인의 성적 사진/동영상 요구	14.4
성관계 요구	12.3
금전 등 대가 요구	8.9
오프라인 만남 요구	24.7
일상생활 개입/간섭	17.3

### (5) 성적 이미지 비동의 공유/유포 피해

- 조사대상 청소년 중 1.1%가 한 개 이상의 성적 이미지 공유/유포 피해를 경험했고, 이 중 청소년의 일상적인 사진에 다른 성적 이미지를 합성·편집한 허위 영상물 유포 피해(1.0%)가 대부분이었음

5) 성적 이미지 유포 협박·강요 피해는 피해자 수가 작아, 성별 및 학년 등 유형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허위 영상물 피해 경험률은 남학생(1.4%)이 여학생(0.6%)보다 높았고,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은 주로 ‘친구’(64.4%)였음. 허위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포하기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38.3%), 문자로 지인에게 전송(37.3%)하는 등 주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 및 학교급별 허위 영상물 피해 경험률 】

단위 : (명), %

피해 유형		전체	성		학교급	
			남	여	중	고
사례수(명)		(4,757)	(2,450)	(2,307)	(2,943)	(1,814)
누군가가 나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성적 사진/동영상에 합성하여 유포한 적이 있다	있다	1.0	1.4	0.6	1.0	1.0
	없다	99.0	98.6	99.4	99.0	99.0

(6) 청소년의 피해 경험 이후 대응

-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의 은닉 촬영, 지인의 비동의 촬영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이 주변에 피해 경험을 알린 대응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경찰 신고나 피해자 지원기관 도움 요청 등과 같은 공적인 기관을 통한 대응보다는 개인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비율이 높았고, 개인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때에도 신뢰하는 어른보다는 또래의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성적 이미지 유포나 유포 협박·강요 피해를 받은 청소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비동의 촬영/제작 피해에 대한 대응 (중복 응답) 】

단위 : ‘그렇다’의 %

사건 이후 대응 방식	사례수 (명)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구했다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다	가족에게 알렸다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
공공장소 은닉 촬영	(52)	24.4	12.1	8.5	16.0	26.0	37.4
지인의 비동의 촬영	(62)	46.1	12.1	12.4	7.8	10.1	22.4

## 【1-2. 청소년의 인식】

###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필요성 인식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5점 척도(5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인식)로 조사한 결과, **평균 4.7점**으로 나타나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 인식】

(단위 ; 명, 평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형별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인식 사례수	전체 (4,757)	성*연령			
		남중 (1,512)	남고 (938)	여중 (1,431)	여고 (876)
1.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 몰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4.68	4.61	4.56	4.74	4.81
2.몰래 촬영한 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의 신체 사진/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강요하는 행위	4.79	4.73	4.69	4.85	4.92
3.몰래 촬영한 후, 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의 신체 사진/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4.80	4.73	4.69	4.87	4.92
4.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 싫다는데도 강제로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4.81	4.74	4.68	4.90	4.93
5.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의 성적 사진/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강요하는 행위	4.82	4.75	4.70	4.89	4.93
6.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의 성적 사진/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는 행위	4.82	4.75	4.69	4.90	4.94
7.온라인/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스스로를 촬영한 성적 사진/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4.73	4.68	4.59	4.80	4.83
8.영상통화, 화상채팅 중에 상대방에게 신체노출이나 자위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4.74	4.69	4.61	4.80	4.85
9.온라인/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혹은 캡처한 성적 사진/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강요하는 행위	4.80	4.74	4.69	4.87	4.91
10.온라인/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혹은 캡처한 성적 사진/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4.80	4.74	4.66	4.89	4.93
11.온라인/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에 성적 사진/동영상을 합성한 후 유포하는 행위	4.80	4.74	4.67	4.87	4.93
12.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합성(허위) 영상물을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행위	4.73	4.65	4.60	4.80	4.89
13.인터넷에서 미성년자의 신체 또는 성행위 사진/동영상을 찾아 단순히 보기만 하는 행위	4.38	4.36	4.30	4.39	4.49
14.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사진/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보관하는 행위	4.55	4.53	4.46	4.56	4.67
15.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사진/동영상을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행위	4.70	4.65	4.58	4.73	4.85
전체 평균	4.73	4.67	4.61	4.79	4.85

##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형에 따른 심각성 인식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형에 따른 심각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타인이 촬영한 미성년자의 성적 사진/동영상’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미성년자로 등장하는 성적 사진/동영상’에 대한 심각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형에 따른 심각성 인식 】

단위 : (명),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형별 심각성 인지	전체	성/연령			
		남중	남고	여중	여고
사례수	(4,757)	(1,512)	(938)	(1,431)	(876)
지하철, 탈의실 등에서 몰래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 사진/동영상	3.61	3.52	3.45	3.72	3.74
타인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사진/동영상	<b>3.64</b>	3.55	3.47	3.75	3.78
미성년자 자기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적 사진/동영상	3.40	3.34	3.22	3.51	3.49
미성년자의 얼굴 등을 성적 사진/동영상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	3.62	3.54	3.45	3.74	3.76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미성년자인 것처럼 등장하는 성적 사진/동영상	<b>3.27</b>	3.19	2.99	3.42	3.45
미성년자의 성행위가 묘사된 만화/애니메이션	3.37	3.30	3.14	3.51	3.49

## 2. 성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인식

### <조사 개요>

- (조사내용 및 조사대상) 성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인식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2,033명
- (조사방법) 컴퓨터를 활용한 웹/모바일조사
- (수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한국리서치

### 종합

- ◎ 성인의 92.7%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4.6점(5점 척도)으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성범죄 연관성, 처벌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

- 조사대상자의 92.7%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는 것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연관 인식】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	간접적으로 관련 있다	아무런 관련 없다	계
전체		(2,033)	44.1	48.6	7.3	100.0
성별	남성	(1,007)	32.2	56.1	11.6	100.0
	여성	(1,026)	55.7	41.2	3.1	100.0

- 성 인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왜곡시킨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율이 9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성적 혐오감을 유발한다’로 89.7%가 동의하는 등 응답자들의 거의 대다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악영향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성 인식, 성적 혐오감 등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1.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왜곡시킨다	(2,033)	2.7	5.4	40.7	51.2	100.0
2.성적 혐오감을 유발한다	(2,033)	2.7	7.6	41.3	48.4	100.0
3.공부나 일을 방해한다	(2,033)	4.4	10.8	41.3	43.5	100.0
4.아동·청소년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게 만든다	(2,033)	4.2	7.7	39.0	49.1	100.0

-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5점 척도 (5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인식)로 조사한 결과, 평균 4.6점으로,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 인식 】

단위: (명), %, 사례수: 2,033명

구분	①점 전혀 처벌할 필요 없다	②점	③점	④점	⑤점 매우 엄하게 처벌	계	평균
1.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 몰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1.2	1.7	4.9	15.2	77.0	100.0	4.65
2.몰래 촬영한 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의 신체 사진/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0.8	1.7	3.6	7.4	86.5	100.0	4.77
3.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의 성적 사진/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0.9	1.8	3.7	6.4	87.2	100.0	4.77
4.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의 성적 사진/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유포하는 행위	1.0	2.1	3.6	7.3	86.0	100.0	4.75
5.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의 성적 사진/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1.0	1.6	3.8	6.4	87.2	100.0	4.77
6.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의 성적 사진/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는 행위	1.0	1.4	3.7	6.8	87.1	100.0	4.78
7.온라인/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스스로를 촬영한 성적 사진/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1.1	2.5	6.3	14.5	75.6	100.0	4.61
8.영상통화·화상채팅 중에 상대방에게 신체 노출이나 자위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1.2	2.5	6.1	14.9	75.3	100.0	4.61
9.온라인/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혹은 캡처한 성적 사진/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0.8	1.3	4.4	9.6	83.9	100.0	4.75
10.온라인/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혹은 캡처한 성적 사진/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1.0	1.5	3.8	9.6	84.2	100.0	4.75
11.온라인/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에 성적 사진/동영상을 합성한 후 유포하는 행위	1.0	1.3	4.2	10.9	82.7	100.0	4.73
12.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합성(허위) 영상물을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행위	1.6	2.6	7.6	18.6	69.7	100.0	4.52
13.인터넷에서 미성년자의 신체 또는 성행위 사진/동영상을 찾아 단순히 보기만 하는 행위	4.3	5.5	14.9	22.0	53.4	100.0	4.15
14.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사진/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보관하는 행위	3.6	4.3	11.8	19.9	60.3	100.0	4.29
15.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사진/동영상을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행위	1.6	2.4	8.1	16.2	71.8	100.0	4.54
전체 평균							4.63



##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규제에 필요한 노력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규제하고자 할 때 어떤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37.6%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고 응답했으며, 다음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26.8%),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확립’(12.6%), ‘유해정보 차단기술의 개발 및 보급’(12.1%) 순이었음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규제에 필요한 노력 순위 】

단위: (명), %

구분	1순위	1+2순위
사례수	(2,033)	(2,033)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확립	<b>12.6</b>	18.0
유해정보 차단기술의 개발 및 보급	<b>12.1</b>	23.0
심의규제 활성화	6.1	12.1
사이트 운영자의 자율적 정화 노력	4.8	11.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	<b>26.8</b>	63.8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b>37.6</b>	71.4
기타	0.1	0.4
계	100.0	-

### 3. 온라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콘텐츠 유통 실태

#### <조사 개요>

- (조 사 명) 온라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실태조사
- (조사내용 및 조사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 영상공유 플랫폼, 불법 성적영상물 사이트 각 1곳(총3개)에 대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콘텐츠 조사
- (조사방법) 관련 검색키워드로 나타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콘텐츠\* 조사분석  
\* 법적·윤리적 한계로 직접적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등이 불가하여, 콘텐츠 제목, 소개글, 해시태그(#), 사용자 ID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 콘텐츠임을 추정
- (수행기관) 한세대학교

#### 종합

- ◎ 대중적인 SNS, 영상공유 플랫폼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교환 등의 광고성 콘텐츠를 게시하고, 직접적인 유통은 다른 경로로 유도함을 확인함
- ◎ 불법 성적영상물 사이트 1곳을 분석한 결과, 게재된 영상의 28.1%정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추정됨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연관 키워드 58개를 검색한 결과, 32개 키워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게시물이 검색되었고, 32개 키워드에서 검색된 전체 게시물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게시물은 0.9%정도로 추정되었으며, 대부분 매매·교환 관련 게시물이었음

【(SNS플랫폼)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게시물 검색이 가능한 32개 키워드로 검색한 게시물 현황】  
단위: 개(%)

전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성매매	무관한 게시물
	소계	판매	구매	교환		
49,976(100.0)	471(0.9)	418(0.8)	6(0.0)	47(0.1)	16,064(32.1)	33,441(66.9)

- 영상공유 플랫폼에서 연관 키워드 60개를 검색한 결과, 18개 키워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콘텐츠가 검색되었고, 검색된 콘텐츠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콘텐츠는 5.5% 정도로, 대부분 광고 관련 영상으로 추정되었음

【(영상공유플랫폼)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콘텐츠 검색이 가능한 18개 키워드 검색 결과 현황】  
단위: 개, %

검색된 콘텐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콘텐츠	전체 콘텐츠 대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비율
19,470	1,079	5.5

- 영상공유플랫폼 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콘텐츠에서 정보교환과 문의 등을 위해 연락처를 제공하는 경우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로 되어 있으며, ‘라인 아이디’를 제공하는 경우가 9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디스코드 주소’(6.5%), ‘오픈채팅 주소’(2.2%), ‘카카오톡 아이디’(1.6%) 순으로 많이 나타남

【영상공유플랫폼 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콘텐츠에 기재된 연락처(SNS) 종류 (중복)】

단위: 건(%)

SNS 종류					전체
카카오톡	라인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오픈채팅	
11(1.6)	631(90.9)	45(6.5)	10(1.4)	15(2.2)	694(100.0)

- 또한, 일반적으로 성인음란물 사이트로 불리는, 불법 성적영상물 사이트 (한국어 기반) 중 일일 페이지뷰 수가 높게 나타나는 1개 사이트에 대해 성적영상물 핵심어 표시(해시태그(#)) 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 전체 성적영상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28.1%로 추정됨

【성적영상물 사이트 ‘야○○○’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추정 현황】

단위: 개, %

카테고리명	전체 성적영상물		수집 성적영상물		
	성적영상물 수(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추정 수(E=A×D)	성적영상물 수(B)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잠정) 수 (C)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잠정) 비율(D=C/B)
합계	411,483	115,749	15,226	4,283	28.1

주: 수집된 성적영상물은 직접 시청이 불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영상제목, 소개글, 해시태그 등을 분석하여 잠정적으로 산정한 수치이며, 전체 게시된 성적영상물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추정 수(E)는 수집한 성적영상물의 잠정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조건에서 추정한 추정치임.